"양극화 해소가 노동문제 관건"

광주서 '새정부 노동정책 방향과 과제' 토론회

노동자 희생 따른 시장 친화정책 우려

비정규직·산별교섭 등 해법 내놓아야

한국노동교육원(원장 선한승)은 25일 광주 신양파크호텔에서 노동전문가와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 정부의 노동정책방향과 정책과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올해 노동문제 해법은 비정규직 문제와 산별교섭구조, 공공부문 노사관계 등에 달렸으며 양극화 해소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국내 노동전문가들은 25일 광주 신양파크호텔에서 열린 토론회를 통해 이명박 정부가 올해 노사갈등을 풀기 위한 3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이날 한국노동교육원 주최로 열린 '신 정부의 노동정책방향과 정책과제에 관한 토론회'에서 노동문제와 사회양극화 해소 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이날 10명의 토론자들은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에 대한 처우 개선에는 한목소리를 냈으나 양극화 해소 방식과 규모 등을 놓고는 견해차를 보였다.

김정대 민주노총 광주본부 대외협력국장은 "새 정부 들어 그동안 노동계의 투쟁성과가 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며 "일방적인 시장친화정책은 노동자만의 희생을 요구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응책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순미 한국노동교육원 교수는 정부가 노동문제 및 사회양극화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올해는 향후 5년간의 노사관계를 좌우할 중요한 시험대라는 점에서 노사가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 밖에 없다"며 "무엇보다 새 정부의 노동정책을 놓고는 노동계와의 적잖은 마찰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권 교수는 또 "올해 노사관계의 주요 쟁점은 비정규직과 공공부문 구조조정, 산별교섭 등을 들 수 있다"며 "정부가 사회양극화 해소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노동계의 강경투쟁 기조를 누그러뜨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나간채 전남대 교수도 "올해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는 지난해와 비슷한 불안정요인이 지속되거나 오히려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며 "사회양극화 완화를 통한 노사관계의 안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고용악화가 지속될 경우 노사관계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안정화 노동교육원 교수는 "최근 노동시장의 압력이 비정규직, 여성, 저학력 계층 등 2차 노동시장으로 전가되고 있다"며 "1, 2차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좁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장호 숙명여대 교수는 "새 정부가 노동시장 정책을 시장친화적으로 전환하는 것은 큰 틀에서는 바람직하다"면서 "다만 지난 정부와의 지나친 차별화보다는 이를 계승발전시키는 창조적 접근법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농식품 안전·원산지 관리 강화

농협전남본부, 판매장 식품담당자 교육 점검 활동

최근 가공식품에서 이물질이 잇따라 검출되면서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덕수)가 농식품의 안전성과 품질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마련에 나섰다.

전남농협은 24일 광주·전남지역 농협판매장의 식품안전담당자 250여명을 대상으로 식품안전과 원산지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또 전남농협은 전 계통사업장에 '식품안전관리 담당자'를 지정 운영하고 자체 농식품감시단인 '우리농산물지킴이'를 동원해 매장점검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역본부와 21개 시·군지부에 '농축산물 부정유통신고센터'를 설치, 국산 농산물 애용에 대한 홍보활동과 농협상표보호활동도 펼쳐나가기로 했다.

이덕수 본부장은 "건강과 식품안전을 중요시하는 소비자들이 급격히 늘고 있지만 소비자의 식탁을 위협하는 부정불량 농식품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앞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기아차 올해 경영 전망 싸고 충돌

외국계 은행 "경영 악화"

국내 증권사 "상황 호전"

올해 기아자동차의 경영환경에 대해 국내외 증권사들의 전망이 충돌, 관심을 끌고 있다.

세계 최대의 투자은행인 미국의 골드만삭스는 24일 리포트에서 기아차가 악재로 둘러싸여 있다고 진단했다. 골드만삭스의 진단은 올해 2·4분기부터 기아차의 대규모 채권 상환시기가 다가오는 데다 해외 영업부문의 손실과 해외공장 준공을 위한 설비투자 등으로 재무제표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우려된다는 데서 비롯됐다.

골드만삭스는 "판매부진으로 인한 생산량 축소로 가동률이 하락하면 고정비용은 더욱 높아지며 최근 원자재 및 부품가격의 상승 등은 수익성 개선을 더욱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내 증권사들은 골드만삭스의 주장이 지나친 비관론이라고 반박했다. 원화약세로 인한 해외영업능력의 향상과 올해 하반기 이후 신차 출시효과를 감안한다면 상황이 나빠지는 쪽보다는 좋아지는 쪽에 베팅해야 할 시기라는 지적이다.

한국투자증권의 서성문 애널리스트는 "해외법인의 재고가 많기는 하지만 원화약세 등으로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메리츠증권의 남경문 애널리스트는 올해 하반기부터 이어지는 신차효과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쎄라토 후속모델, 소형 CUV(Crossover Utility Vehicle) 차량인 'AM', 쏘렌토 후속모델, 대형세단인 'VG' 등 잇따른 신차 출시가 계획돼 있어 영업력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기아차 노조는 24일 회사측의 일부 설비에 대한 '세일 앤 리스백(Sale & Lease Back·회사설비를 매각한 뒤 싼값에 다시 임대하는 방식)' 처리와 관련, "명백한 단협위반"이라며 반발해 계획했던 무기한 파업을 유보키로 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보해저축은행 광주지점 치평동에 오픈

보해상호저축은행(대표 오문철)이 25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대우디오빌 1층에 광주지점을 열고 업무에 들어갔다.

목포에 이은 2호점인 광주지점 개점식에는 임건우 보해양조 회장, 임현우 부사장 등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사진〉

총자산 3천867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보해상호저축은행은 '8·8클럽'으로, 높은 금리혜택을 제공하면서 지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8·8클럽'은 BIS 비율이 8% 이상이면서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8% 이하인 우량저축은행을 뜻한다.

오문철 대표는 "지점 해당지역 뿐만 아니라 인근지역 고객에게까지 만족할 만한 최상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문의(062)372-7800.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中企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인력지원 업무협정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강영태)는 25일 회의실에서 지역본부 광주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이사장 김윤석)와 중소기업 인력지원을 위한 업무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광주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근로자 지원과 구인구직정보 공유,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교육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강영태 본부장은 "지역 중소기업이 외국인근로자 활용을 원할 경우 신청에서 생산현장 투입까지 품격높은 원스톱 서비스를 신속히 제공,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목포 옥암택지지구 듀콘 '법원프라자' 분양

부동산개발업체인 듀콘은 목포 옥암택지개발지구 인근에 근린상가인 '법원프라자'를 분양중이다.〈조감도〉

이 상가는 대지면적 1천663㎡(503평)에 연면적 1만1천618㎡(3천514평), 지하 2층~지상 10층 규모다. 법원·검찰청 이전 예정부지 인근에 위치해 상권 전망이 밝다는 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상가 인근의 남악신도시에는 전남도청을 비롯, 공공기관 77개, 초·중·고·대학교 17개가 들어선다. 또 옥암지구 입주민 7천400세대와 남악신도시 유입 인구 15만여명 등 배후 인구가 풍부하다. 옥암지구 랜드마크 조성을 위해 세련된 외관디자인을 갖췄으며, 오는 12월 입점예정이다. 문의 061-283-8887.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중흥 수완지구 'S-클래스'

고급마감재 등 업그레이드

중흥건설은 오는 28일 광주 수완지구 'S-클래스'아파트에 대한 업그레이드 오픈을 실시한다.

공급 면적은 116㎡, 119㎡, 120㎡, 122㎡ 등 4가지로, 총 1천418세대의 대단지로 조성된다.

수완 'S-클래스'는 친환경 고급마감재와 공간혁신 설계, 광폭발코니확장 등이 도입된다. 또 수요자들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를 고려해 화이트계열의 유럽풍 디자인과 체리, 월넛 등 다양한 맞춤형 인테리어를 선보일 예정이다.

단지 내에는 복합문화레저센터, 선큰가든, 테마공원 등을 조성함으로써 리조트형 아파트로 꾸며진다는 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계약금 5%와 중도금 전액 무이자대출 등 금융혜택도 강점이다.

모델하우스는 광주시 서구 농성광장 인근에 있다. 문의 062-364-0001.

수완지구는 호남고속도로와 제2순환도로 등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추고 있으며, 호수공원과 연계한 대규모 복합쇼핑몰이 조성되는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들어선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